

I. 시작하는 말

오늘은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휘장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막고 어떤 이들에게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II. 중심 말씀

1. 우리에게 좋은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 대제사장이 한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나눔 질문)

2. 예수님으로 인해 성소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는 위로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소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과 모든 뜻대는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을 언급하거나 다른 길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달콤하다 할 지라도 더 이상 옆에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떡을 먹어도 그곳이 지성소이고 빛의 조명을 받아도 그곳이 지성소이고 기도를 해도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곳이 모든 순간이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곳을 지성소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3. 하나님이 해 놓은 그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놓은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살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밟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 말고는 새롭고 살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밟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기도가 놀라운 특권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왜 실패함이 없겠는가! 그것은 예수의 몸을 들어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는 그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찬321)

-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예수가 함께 계시지(찬325)

- 1) 예수가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2) 이세상사는 동안에 주이름전파 하면서 무한한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 3) 이세상친구 없어도 예수는나의 친구니 불의한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 4) 주께서심판 하실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사랑에 안에 살면서 탄길로 가지 맙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